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0 “우리도 편다”



광주 서석고·조선대·북구청 검도선수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체전 전관왕 대기록 올해도 꼭 이어갑니다”

서석고·조선대·북구청 검도팀

“지난해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금메달을 쓸쓸히 한 자긍심을 갖고 올 여수에서 열리는 89회 체전에서 또 다른 신화창조를 위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검객’들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다. 서석고, 조선대, 광주시 북구청 검도선수들은 지난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전국체전 전관왕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 올 여수전국체전에서도 다시 한 번 전관왕에 도전할 계획이다.

특히 최용훈 광주시검도협회 회장은 전무후무한 전국체전 성과에 대해 전 선수들을 대동하고 중국 연수를 다녀오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종률 전부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도 어우러져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 종합우승 2연패라는 신화 창조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 연수 등 파격지원에 사기충천

이들이 매년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것은 동계훈련 기간동안 서석고, 조선대, 북구청이 합동훈련을 하는데다 이들 모두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훌륭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동진 서석고 감독은 “매년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동계훈련의 마무리 기간으로 그동안 다졌던 체력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선수들도 이제 3·1절 전국마라톤 출전이 자연스러운 전통이 돼 새 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1년을 여는 중요한 행사 됐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지옥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서석고 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며 새벽 1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야간 1시간 30분씩 지옥계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북구청 검도팀은 서석고·출신 선·후배로 뭉쳐져 이들의 팀워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전력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됐고, 결과는 전인미답의 종합우승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중한 땅의 가치를 경험한 선수들은 올 해도 오전에는 조선대학교 분관 일명 ‘지옥계단’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다지고 오후에는 서석고에서 합동훈련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고 있다.

광주 검객들은 10km나 하프, 풀코스에서 출전해도 거뜬한 체력이지만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춘계대회를 앞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상을 염려 5km만 참가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전훈캠프 광에선...

주장 장성호, 거포 변신 중

“타율 보다 홈런·타점 위주 팀 승리 견인”

부상 회복에 주력...일본서 기술훈련 계획

KIA타이거즈 주장 장성호가 야구명가 재건을 위해 거포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스나이퍼’(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장성호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까지 9년 연속 3할 타율을 달성한 대표적인 교타자다. 지난해 0.281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3할 기록 행진을 끝낸 장성호는 올 시즌 ‘거포 변신’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지난 9일부터 광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장성호는 “그동안 타율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이제는 타율보다는 홈런과 타점에 전력을 다해 팀 승리를 이끌어 내는 데 공헌하겠다”고 2008시즌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KIA가 기록한 홈런 수는 73개에 불과해 장타율(0.364)과 더불어 8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였다.

주장을 맡고 있는 장성호는 지난해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아든 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팀 승리 견인이라는 중책을 자임했다.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20개의 홈런과 90개의 타점, 타율은 0.28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12번의 시즌을 보내며 20홈런 90타점을 넘긴 적은 2001년 (23홈런 97타점)과 2003년 (21홈런 105타점) 두 차례에 불과했다.

장성호가 올 시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상 회복이 관건이다. 장성호는 우측 견관절회전근 염증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재활 치료와 기초체력훈련 위주의 몸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상회복이 우선인 만큼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광 전지훈련에서는 우선 기초체력을 다질 계획이다. 본격적인 기술훈련은 미야자키로 자리를 옮겨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호의 변신이 성공할 경우 KIA는 ‘빅 초이’ 최희섭으로 연결되는 막강한 중상타선을 보유하게 된다. 이용규를 필두로 발데



광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KIA의 장성호가 파세오 구장에서 러닝을 하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스, 이현근, 이종범 등도 화력지원에 나선다.

부상으로 지난해 ‘개인 기록’과 ‘팀 공헌’ 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최악의 시즌을 보낸 장성호, 그의 거포 선언으로 2008시즌 한층 파워 넘치는 KIA의 타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희섭 정밀검진차 귀국

광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KIA타이거즈의 최희섭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2일 귀국해 정밀 검진을 받는다. 지난 19일 훈련 도중 투릉과 어지러움 증을 호소해 휴식을 취해왔던 최희섭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을 결정했다.

최희섭은 지난 2003년 시카고 컵스 시절 1루 수비를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 3~4차례 비슷한 증세를 보여왔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용수 “첫 패배 안긴 마사토와 재대결 희망”

세계 프로복싱 챔피언 출신 최용수(36)가 격투기로 전향한 뒤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긴 일본 격투기 스타 마사토(29)와 재대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수 소속사 티엔터테인먼트는 21일 “최용수가 지난 해 말 마사토와 대결해 패한 뒤 다시 맞고 싶어한다”면서 “대회 일정만 맞다면 6월 국내서 열릴 예정인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재대결이 이뤄질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수는 지난 해 31일 일본에서 3라운드

입식 타격 방식으로 마사토와 처음 맞붙었지만 3라운드 시작 59초 뒤 세컨드가 흰색 타월을 던지는 바람에 기권해야 했다. 2006년 2월 격투기로 이적을 선언한 뒤 무패 행진(3전 전승)을 달리다가 안은 첫 패배.

에이전트 양명규 프로모터는 “복수를 원하는 최용수와 마사토의 재대결이 올해 이뤄지도록 K-1 주최사인 FEG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일교포 추성훈(33·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과 미사키 가즈오(32·일본)의 재대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2일 (화)
▲07/08 프로농구(오리온스 : KT&G) (18 : 50·SBS스포츠·XSPORTS)
▲2008 호주 오픈 테니스 8강전(09 : 00·MBC ESPN)
23일 (수)
▲07/08 칼링컵 준결승 2차전 (토트넘 : 아스날)(05 : 00·KBS N SPORTS)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enefi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K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신세기약국', '신창스튜디오', '빛고을황태마을', '갤러리아골프클럽', '유진다방', '운남생활용품', '청해진의꿈(신가본점)', '윌출도사', '까반느', '법무사정혼연사무소', '유창사', '운남금호축산식육식당', '기아크리닉(동광주서비스센터)', '자스민식당', '기업은행(하남공단지점)', '영지철학원', '황수안플라워', '행정사김종욱', '관광호텔커피숍', '소리바다음악학원', '현대해상(주)보험마을', '기산헬스클럽', '굿모닝치과', '무안세꼬시', '우리난청오티보청기', '천상동자', '두리침학원', '대성카손세차', '한국인삼공사건강홍삼강장성품', '진흥선원', '하나공인중개사', '푸른건강원', '킹윙크충전전국', '광주브러러리', '호남부동산', '윤가네생삼겹'.